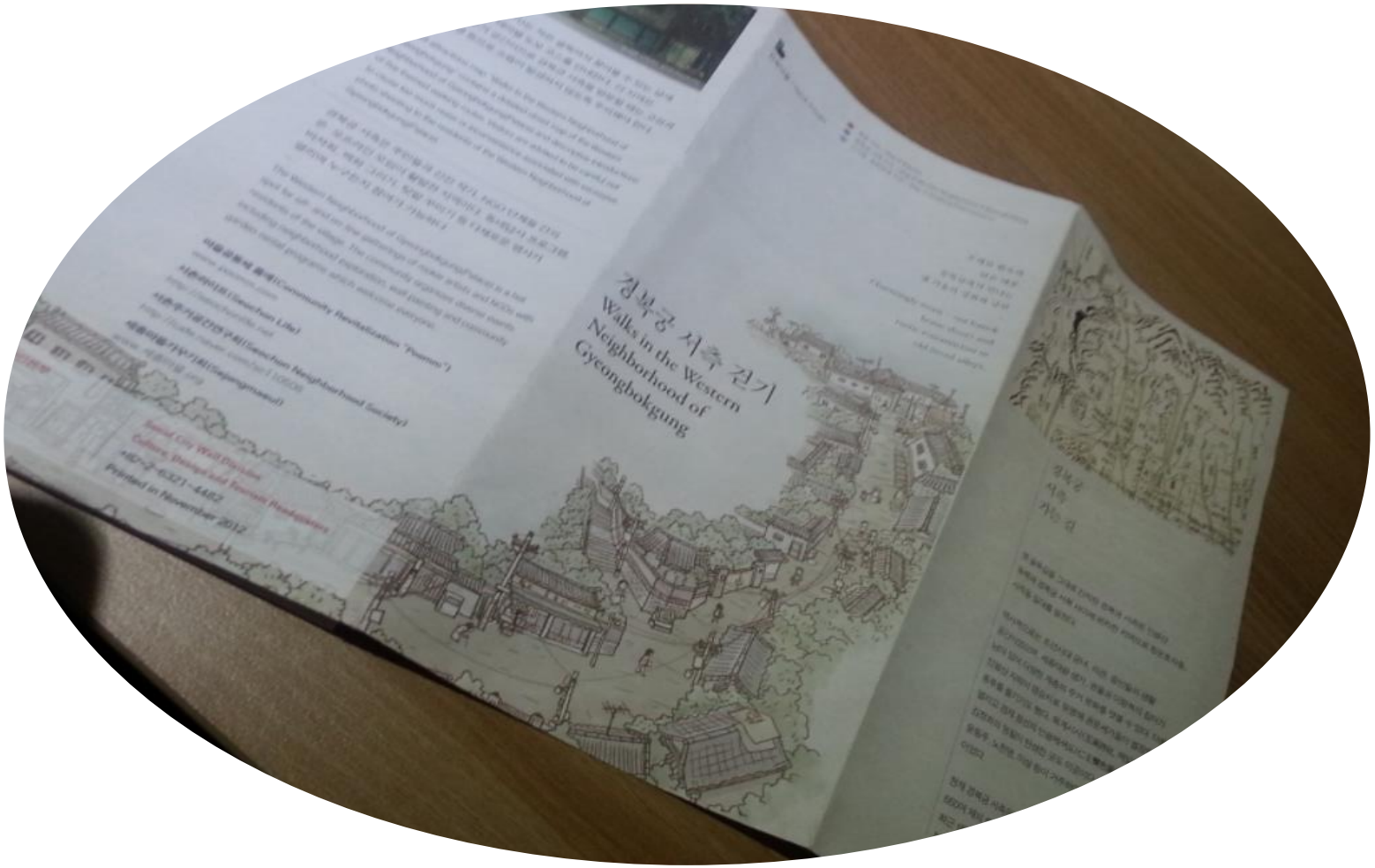


서촌 걷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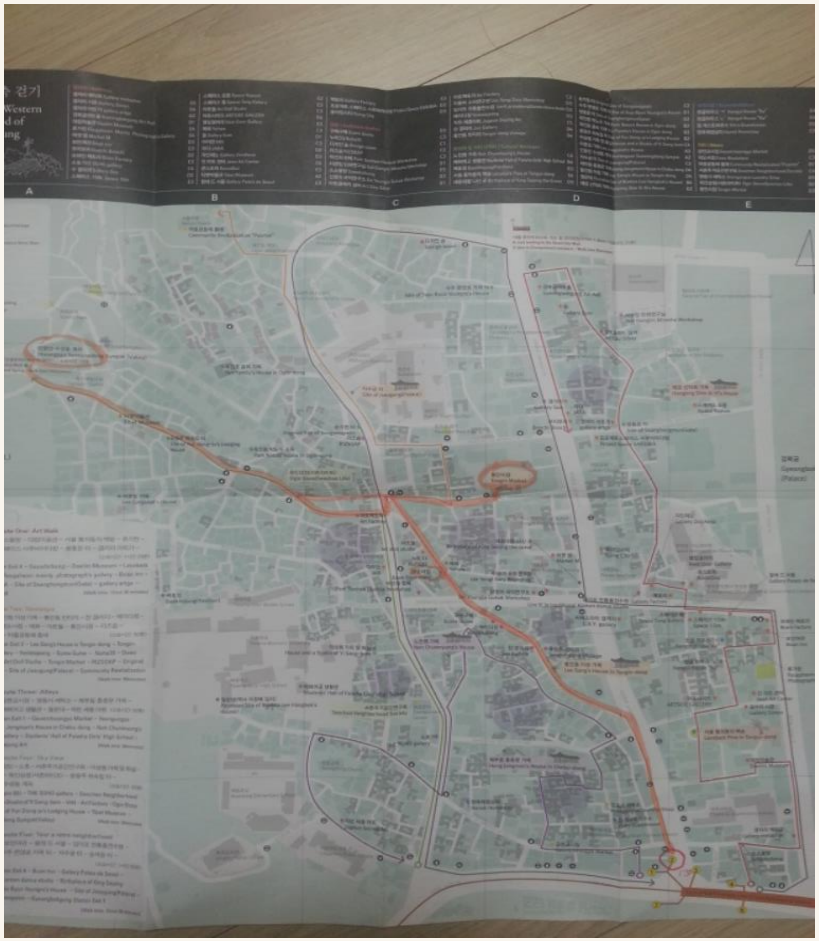
4급 타카하시 치하루

2014년 11월 7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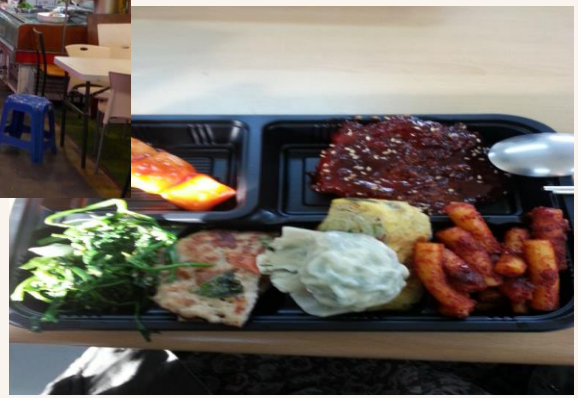
서촌 걷기의 시작은

통인시장에 점심하기.

재미있게 자기 도시락을 만듦.



[서촌 걷기의 경로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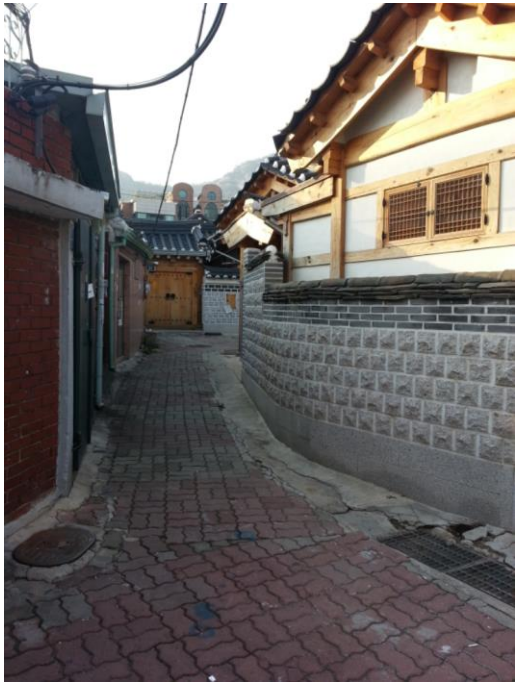
대오서점

간판의 하늘색이 눈에 잘 띈다.
옛날 물건들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 지는 느낌이다.

[길을 찾는 중]

'복잡한 골목'

서촌의 특징은 뭐니뭐니해도 복잡한 골목이다. 길을 잃어버려도 옛날 건물들을 구경하며 산책을 즐길 수 있다.



[친절한 안내판]

드디어 도착,

인왕산 수성동 계곡

인왕산 경치가 멋지고 공기가 맑고 상쾌하다.
서울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니 놀랍다. 일상 생활의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기분이다.

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많은 서측.
꼭 다시 가 보고 싶다.